



전북도,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전략 구상

지난 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전략 조찬포럼' 첫 회의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전략 포럼 출범

산학연정·기업 50여명 첫 조찬포럼
기술·정책 방향 산업 동향 등 공유
제조산업 연계 실증·사업화 논의
국가사업·글로벌 협력 연계 추진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와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피지컬AI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으로 '전북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전략 조찬포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피지컬AI·로봇 분야의 기술·정책 동향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정재민 KAIST 대외부총장, 김순태 전북대 피지컬AI융합추진단장과 시·군, 대학, 연구·지원기관, 기업 관계자 등 산학연정 및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피지컬AI·로봇 분야의 기술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전북이 선점해야 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연구기관·기업·행정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 지역에서 발굴한 과제를 국가사업과 글로벌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럼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전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첫째 주에는 '피지컬AI', 셋째 주에는 '로봇'을 주제로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기술·정책 동향과 산업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첫 회 발제에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과 이연수 NC AI 대표가 참여해 국가 차원의 AI·피지컬AI 기술 및 정책 방향과 산업현장의 주요 흐름을 공유했다.

홍진배 원장은 피지컬AI를 둘러싼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연수 대표는 피지컬AI 기술의 산업

적용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의 산업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지역 제조산업과 피지컬AI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실증·사업화 방안과 기업 육성,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원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과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포럼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산업 과제를 지속적

으로 추적해 전북의 피지컬AI·로봇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전략사업 및 국내의 산학연 협력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해 "피지컬AI는 AI와 로봇, 제조산업이 결합하는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과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전북의 산업 역량을 국가전략사업과 글로벌 협력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SFTS 환자·사망 다발지역 감시망 부족”

지난해 환자 280명 64.7% 증가
다발 17곳 중 9곳 감시지점 없어
사망 다발 7곳 중 5곳 감시 공백
“고령·농어촌 고려해 보완해야”



박지원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살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피해가 고령층과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으나 환자·사망 다발지역 상당수에 감시지점 감시지점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FTS 환자는 2024년 170명에서 지난해 280명으로 64.7%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6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농작업과 야외활동 과정의 진드기 노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2021년

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환자의 66.6%, 사망자의 82.2%가 65세 이상이었으며, 고령층 치명률은 20.6%로 전체 16.7%보다 높았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전국 0.55명에 비해 강원 2.05명, 경북 1.79명, 전북 1.15명으로 높아, 농어촌·고령층의 노출 위험을 반영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사망 발생지역과 참진드기 감시망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17개 시·군·구 가운데 9곳(52.9%),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한 7곳 가운데 5곳(71.4%)에 올해 참진드기 감시지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모색 ·14개 시군·전문가 한자리

세미나서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법인기부 도입·세액공제 확대
기부자 공감 특색 기금사업 발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운영전략 추진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도 및 14개 시·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새로운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인 정착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를 위해 법인기부 도입, 세액공제 확대,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법인기부 도입, 주소지 기부제한 완화,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고향사랑e음' 공공 플랫폼의 기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전북의 실정에 맞는 기부자 맞춤형 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금사업과 신뢰도 높은 홍보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민희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전북의 지속가능한 기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 없었다. 사망 다발지역 중 감시지점이 없는 곳은 경주시·영천시·포항시 남구·북구·남양주시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기존 감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고위험지역을 추가로 살필 보완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시결과가 실제 위험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점검 과제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참진드기 39만2,235마리를 채집해 1만7,174개 검체목록(Pool)을 검사했지만, 바이러스 양성률은 10건이었다.

질병청은 감시지역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연구를 수행한 바 없다고 답변해, 감시지점·채집시기·표본량·검사방식과 실제 환자 발생지역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환자와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위험이 살인진드기 감시지점 선정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장기 표본감시는 유지하되, 최근 환자·사망 발생과 인구 대비 발생률, 고령인구와 농작업 노출을 고려해 고위험 지역의 감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드기를 얼마나 채집했는지뿐 아니라 감시결과가 실제 감염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감시지역과 검사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점 추가·재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가을철 농어촌·고령층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여성농업인의 날 첫걸음...“농업 주체” 한뜻

제1회 道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여성농업인·단체 등 100여명 참석
권의 향상·농촌 발전 유공자 표창
전시·나눔행사 등 농업 가치 공유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려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희망과 다짐을 담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여성농업인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지를 함께 나눴다.

또 여성농업인 정책 전시와 토종종자 전시·나눔행사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소중한 자산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농업·농촌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농사와 가정, 지역사회를 빠짐없이 챙기며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라며 “전북은 여성농업인의 말씀



<사진=전북도>

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으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날이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소통하는 대표적인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제안

종사자단체 간담회서 개정안 설명
창작·실연·기술지원 종사자 포함
현장 단체들과 환경·제도 개선 논의
사각지대 개선 등 현장 의견 청취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종사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술인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까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추가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

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호 범위를 넓히고 당연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현장의 노동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하며 산재보험 당연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호 공동대표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겪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송창곤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효

진 지회장은 임의가입 제도의 낮은 가입률을 지적하며 당연 적용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 단체들은 개정안이 정한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구체적인 추가 요청사항과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술인 임의가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보호 범위를 넓혀 산재보험 당연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4년간 372억”

전북 피해액 34억5천만원 집계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강화해야”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3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야생동물별·연도별 농작물 피해액’자료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농작물 피해액은 총 371억 8,6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억 4,900만원, 2022년 87억 1,200만원, 2023년 95억 8,200만원, 2024년 95억 4,300만원으로, 연평균 약 9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 피해가 237억 3,200만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다. 고라니 피해는 51억 7,200만원으로 13.9%였다. 두 동물로 인한 피해액을 합하면 289억 4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7.7%에 달했다.

피해작물은 ‘기타’ 항목의 피해액이 173억 2,100만원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기타에는 고구마·옥수수·감자·콩·복숭아 등이 포

함됐다. 개별 작물 가운데는 사과 피해가 73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 70억 6,100만원, 벼 32억 4,500만원 순이었다. 작물마다 피해 양상과 재배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제출액을 합산하면 강원 이 82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72억 1,600만원, 충북 39억 2,300만원, 경남 38억 2,400만원 순이었다. 강원과 경북 두 지역의 피해액은 154억 9,300만원으로 전체 제출액의 41.7%를 차지했다. 전북은 4년간 34억 5,200만원으로 전체 제출액의 9.3%였으며, 2024년 피해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3% 증가했다.

윤 의원은 “농민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훼손되는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주요 야생동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시설 설치·관리 등 현장에 맞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올해 종료

전북도는 지난 8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아직 지원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202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차와 건설기계 7,043대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9월 말까지 조기폐차 4,234대, 전동화 개조 등 5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61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7대 등 총 4,559대를 지원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와 4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설기계다. 차량 소유기간과 등록지역, 정상가동 여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이며, 4등급 경유차는 각각 최대 800만 원과 7,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전환도 병행한다. 지게차·굴삭기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전기 방식으로 바꾸고, 전기 굴삭기·지게차 보급 등을 통해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도 줄여나가고 있다.

신청 기간과 잔여 사업량은 시군별로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나 환경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도는 5등급 차량 지원 종료 이후에도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감축을 지속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道,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본격화

통합지원센터 8일 개소 본격 운영
개인맞춤 지원계획 수립·복지 연계
6세 미만 영유아 조기 개입 지원
센터 연계 성장단계별 서비스 제공

전북도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개입부터 성장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난 8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장애아동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발달 수준 및 가족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복지·교육·의료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6세 미만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

협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발견과 개입을 지원하는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적극 발굴해 조기개입서비스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이 성장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

계해 성장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숙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아동은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부터 성장 이후의 서비스 연계까지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반경 5m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5. 어린이 보호 구역

6. 횡단보도

7. 인도



새만금공항 정상화 촉구... 14일 항소심 선고

도내 209개 단체 기업 투자 뒷받침 공항 건설 사급성 강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209개 사회·경제·건설교통·체육단체가 공항 건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만금이 이차전지와 로봇·인공지능·수소 등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가 오랜 논쟁과 사업 지연에 종지부를 찍고 멈춰선 공항 건설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연합은 특히 새만금의 산업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봇·인공지능·수소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약 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추진연합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기업 투자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재, 기술과 시장을 국내외로 연결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투자는 공장 건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관계자와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 국내외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교통 기반시설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항 건설이 지연될 경우 새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와 협력기업 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연합은 새만금국제공항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북의 오랜 항공교통 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항 건설 지연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차질을 넘어 전북의 성장 기회를 제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에서는 공항 입지 선정과 항공 안전성,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연합은 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의 산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도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항 건설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에 기업의 투자는 이미 시작됐으며 이제 정부가 하늘길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공항 건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새만금의 미래도, 전북의 도약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때까지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주농산물유통센터, 4년 연속 ‘적자’

농협 유통계열사 5년간 영업손실 2,886억원

전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누적손실이 2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자 규모는 1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확대됐다. 올해 들어 흑자로 전환했지만 전국 농협 유통계열사의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1년 7억5,8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4억1,200만원의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23년 2억6,400만원, 2024년 7억5,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손실 규모가 12억6,70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4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7억9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적자가 2024년부터 다시 확대되면서 점포 운영과 비용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9,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연간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흑자 전환의 구체적인 원인도 확인되지 않아 경영 정상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센터의 경영 악화는 농협 유통계열사 전반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자와도 맞닿아 있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각각 390억원과 305억원으로 총 695억원에 달했다. 두 회사의 영업손실은 2021년 423억원에서 2022년 543억원, 2023년 602억원, 2024년 62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 2,8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두 회사에서 26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적자점포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농협하나로유통은 전체 23개 점포 가운데 19개(82.6%)가 적자를 냈으며, 농협유통 역시 38개 점포 중 23개(60.5%)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전체 61개 점포 가운데 42개(68.9%)가 적자 운영을 한 셈이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연평균 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에도 47억1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손실 규

모가 가장 컸다.

농협 유통계열사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자가 장기화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주센터를 비롯한 적자점포의 비용구조와 판매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수익성 개선을 병행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들의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낭비되는 비용 요소를 점검하고 점포별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컨퍼런스’ 개최

업무 전문성 강화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성수)은 지난 8일 농협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책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 농·축협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농·축협 감사업무 책임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최근 변화된 제도와 법률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고사례 및 예방교육 △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의 이해 △ 최근 농·축협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중점 점검사항 지도 △ 감사업무 내실화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호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은 유효석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률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교

육했으며, 동시조합장 선거는 이한솔 변호사가 최근 농협법의 변경사항과 조합장 선거 관련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농·축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사고조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전북검사국 김성수 국장은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통해 농·축협 감사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고, 농·축협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검사국은 체계적인 감사교육을 통해 농·축협 건전경영과 조합원 및 고객의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청년 취업 준비 돕는 일자리 행사

면접·취업상담까지

정읍시가 청년 구직자와 지역기업의 만남을 마련하고, 77명 채용을 위한 현장면접과 취업상담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8일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2026 정읍시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청년 구직자와 시민 8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은 채용·면접, 공공기관과 지원기관 안내, 체험·부대행사 등 총 45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채용·면접 공간에서는 20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진행했고, 1개 기업은 기업홍보에 참여했다. 구직자와 기업을 행사 전에 미리 연결하고 당일 현장 신청도 받아 면접과 채용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채용정보와 업무 관련 상담, 청년 재무상담 등을 제공했다. 정읍시청년지원센터와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은

청년 지원사업과 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여성 취업상담을 비롯해 노동문제와 외국인 체류 관련 상담(비자 상담) 등 구직자별 상황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이력서 작성 상담과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면접 연습, 증명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 찾기(퍼스널컬러), 머리 모양 상담, 취업론 상담(취업타로)도 마련했다

체험행사로는 열쇠고리 만들기와 ‘인생네트’ 사진 촬영, 향기 체험 등을 운영해 참여자들이 취업 준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와 지역기업이 직접 만나 채용정보를 나누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이것이 국산 감초! 감초 ‘원감’ 수확 한창

농진청, 신품종 산업화 활성화



8일 충남 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최로 열린 ‘감초 신품종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전북은행, 지방은행 첫 디지털자산 정보 서비스

국내 5대 거래소 시장동향 종목정보 ‘한눈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이 지방은행 최초로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디지털자산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썬뱅크’에서 거래소별 종목 순위와 시장동향, 실시간 뉴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은 디지털자산 데이터 전문 기업 보난자랩과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금융 플랫폼 ‘썬뱅크’를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난자랩은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디지털자산 시세와 시장정보를 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디지털자산 전문기업의 데이터를 도입해 고객 대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썬뱅크 이용 고객들은 디지털자산 시장동향을 비롯해 거래소별 종목 순위, 실시간 뉴스, 개별 종목의 상세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서비스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금융앱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거래소에 분산된 시장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자산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은행은 앞으로 보난자랩과 협력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 관련 리서치

와 시장 분석 콘텐츠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디지털자산 정보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썬뱅크의 금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고객 수요에 맞춘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업과 협력해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썬뱅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건설업계 “새만금 하늘길 열어야”

“사업 지연 장기화 땀 투자 위축·지역경제 타격”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공항 건설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의 적정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건설의 공익적 가치가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지역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지역발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환경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했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조류 충돌 위험 평가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사전궤별 등 인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공익과 환경적 위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항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업 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철도, 도로를 연계한 종합교통망 구축이 새만금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공항 건설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기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신규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면서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공항 건설이 지닌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지역발전의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AI로 학교 반복업무 줄인다

행안부 ‘AI 챔피언’ 도구 직접 개발한 교직원 16명 참여



전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AI)으로 줄이기 위한 실무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본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AI 활용 업무경감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해 업무를 개선한 교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실무 인재 ‘AI 챔피언’과 대화형 코딩(바이브코딩) 방식으로 자체 업무 도구를 개발한 교직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원클릭업무포털’, ‘스마트 클래스 대시보드’, ‘결재함 모아보기’, ‘학교업무도우미’ 등의 실제 활용 사례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일선 학교와 직속기관에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 업무 영역을 짚어보고, 자체 개발한 도구를 동료 교직원에게 공유·확산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애로사항과 인프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과 서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후속 지원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AI를 활용한 업무경감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상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교직원들이 필요한 업무 도구를 스스로 개발하고 동료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금마 마을여행’ 첫선

시민이 만든 체류형 여행

익산시가 세계유산 미륵사지·왕궁리유적과 금마마을을 잇는 체류형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개발한 ‘고도(古都) 금마 마을여행’ 상품 4종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열리는 ‘왕궁리 노을요가 리트릿’이다. 왕궁리유적의 노을을 배경으로 요가와 심인볼 명상을 즐기고 은팔찌 만들기를 체험한다. 24~25일에는 재연배우와 함께하는 백제시간여행과 천연 도읍 골목투어, 한옥 숙박을 결합한 ‘서동선화’와 떠나는 백제여행’ 1박 2일 상품이 운영된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루 일정으로 즐기는 당일 상품도 31일 마련된다.

31일에는 백제의복을 입고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다과와 국악공연을 즐긴 뒤 달빛 해설투어에 참여하는 ‘미륵사지 금마다과상’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에는 해설과 공예, 다도, 요가, 식음, 한옥숙박 등 지역에서 활동해 온 주민과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여행이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운영 상품은 정가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된다. 가격은 1박 2일 9만 9,000원, 당일 상품은 2만~3만 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금마여행 공식 인스타그램(@geumma.village)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기초과학 동맹’... 전북대·전남대 램프사업단 맞손

단계평가 경쟁 넘어 ‘물질·에너지’ 공동연구

호남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 정부 지원 국책 사업의 단계평가 경쟁 관계를 넘어, ‘물질·에너지’ 분야 연구 인프라를 전면 공유하고 공동 연구진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북대 G-램프(LAMP)사업단(단장 이정환)과 전남대 G-램프사업단(단장 박대희)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G-램프 사업은 대학 기초과학연구소의 관리·지원 체계를

혁신해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두 대학은 지난 2024년 기초과학 12대 분야 중 동일하게 ‘물질·에너지’ 분야에 선정돼 연구를 진행해 왔다. 통상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향후 사업비와 지속 지원 여부가 걸린 단계평가에서 순위 경쟁을 벌이지만, 이번 협약은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호남권 기초과학 연구 벨트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 대학이 축적한 연구 자산을 결합해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 현상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협약에 따라 두 사업단은 물질·에너지 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R&D 전문 인력 양성 및 상호 인력 교류 △연구 장비 등 R&D 인프라 공동 운영 및 자문



△행정·재정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 직후 열린 미니 세미나에서는 각 대학의 중점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할 공동 연구 주제를 조율했다. 양 사업단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국 램프 사업 수행 대학들과의 학술 교류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넓혀갈 방침이다.

<사진=전북대>

/최성민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연극 ‘꽃, 별이 지나’ 공연

16~17일 양일간 선봬

깊어가는 가을,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아름다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특별한 연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연극 ‘꽃, 별이 지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 유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를 지원받아 마련된 것으로,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유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연극 ‘꽃, 별이 지나’는 일반적인 대사 중심의 연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

우의 몸과 움직임으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한다. 꽃이 피고 별이 지는 것처럼 삶을 스쳐 가는 사랑과 만남, 남겨진 감정과 기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지나가는 계절과 시간 속에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번 무대에는 섬세한 감정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고보결과 탄탄한 연기력과 묵직한 존재감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명품 배우 진선규가 출연해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안무가 김실진의 섬세하고 유려한 움직임이 더해져 작품의 매력을 한층 높인다. 김실진 특유의 부드러운 면서도 강렬한 신체 언어를 통해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배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대사가 돼 관객에게 전달된다. 공연을 선보이는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단원들이 20년 이상 이끌어온 단체로, 연극에 다양한 장르와 표현 방식을 결합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무대 경험을 선사해 왔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계절의 색이 깊어지는 가을, 관객들에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16일 오후 7시 30분, 17일 오후 3시 총 2회 진행되며, 전석 2만원이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종길 기자



<사진=군산시>

진안고원 가을숲길 달린다 ‘포레스트리얼’ 개최

진안 산림자원·로컬체험 결합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일대에서 ‘2026 진안고원 Forestival: Run & Heal’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안의 산림자원과 전북 각 지역의 로컬체험을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고, 러너와 관광객들이 트레일 러닝과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트레일러닝은 6km와 16km 두 코스로 구성됐다. 치유원 순환길과 숲길을 잇는 6km 코스는 입문자와 가족 단위 참가자를, 선각산과 덕태산 등을 지나는 16km 코스는 트레일러닝 경험자를 대상으로 했다. 행사장에서는 재단이 올해 발굴하고 육성한 로컬 체험관광상품 가운데 최종 5선으로 선정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완주 봉강요 ‘도자기 전시, 물레 체험’ △전주 모주체험 ‘전통, 인삼 모주 체험’ △익산 서동팍 ‘열대과일 브런치 체험’ △완주 드림플 힐링팍 ‘꽃바구니 체험’ △익산 불과 로라의 치유농장 ‘치유 허브차와 수제 다과’이다.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개그맨 강재준이 재단의 서부내륙권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왓아전북’ 촬영에 참여했다. 콘텐츠에는 강재준이 트레일러닝과 로컬 체험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행사는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주최하고 재단과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주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가을철 호흡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1. 외출 후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실내습도 조절 (50~60%)



4. 충분한수분 섭취



익산시,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K-푸드 식품수도’ 알린다

익산시가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함께 K-푸드(Food) 생산현장부터 식품문화축제, 지역 관광까지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시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합열을 하림 퍼스트키친을 찾아 라면과 즉석밥, 만두 등 다양한 식품의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이를 익산시 공식 인스타그램과 연계해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K-푸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생산현장의 위생·품질 관리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K-푸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오는 16~17일 열리는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도 집중적으로 알린다. 전국 규모 요리경연과 유명 셰프 쿡킹쇼, 체험·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K-푸드 식품문화축제의 매력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는 K-푸드의 맛을 넘어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산업 현장까지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NS푸드페스타와 관광상품을 연계해 익산이 새로운 K-푸드 관광도시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보건소, 보건복지부 장관상 ‘정신건강증진 유공’ 평가

군산시보건소가 지난 8일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건강증진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군산시보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건소 중 유일하게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정신건강·자살예방·중독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다해 군산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생활폐기물 간이수거함 확대…쓰레기·재활용품 한곳에

정읍시가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간이수거함’ 21곳을 추가 설치하고 총 47곳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4월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 뒤 7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시설 설치와 점검을 마치고 공사를 완료했다.

간이수거함은 기존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보다 시설 규모와 설치 비용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 여건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새로 설치한 수거함은 가로 3m, 세로 3m, 높이 2m 규모로 제작됐다. 내부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는 구역과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구역으로 나뉘었다.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곳에서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시설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했다. 시는 현장 여건에 맞는 관리를 지원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설 확충은 농촌과 주거지역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을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연 기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김재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 성과 되짚어 미래성장동력 본격 추진

민선9기 김재준 군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되짚고, 군산에 찾아온 성장의 기회를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8일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앞으로 남은 3년 9개월은 변화의 실현과 완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취임 첫날 시장실을 청사 1층으로 옮긴 데 이어, 50일 동안 모든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을 직접 만나 180건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시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동시에, 군산의 성장을 가로막아 온 현안을 풀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그 결과 새만금신항의 관할이 군산

으로 결정됐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억 원이 반영됐다.

기업 투자와 산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선박 10척의 건조의항서를 확보하며 완성선 조선소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OCI와 PKC를 엔지니어링으로 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으로 첨단산업 기반도 넓어졌다.

현대차그룹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의 첫 사업인 AI 데이터센터도 이달 건축심의를 들어가면서,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김 시장이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현대차그룹 투자의 완성이 다.

새만금 10기가와트 규모 신재생에너지는 기업 유치의 무기로 삼는다. 시민 생활은 생애주기에 맞춰 채워간다.

우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을 늘리고 출산과 소아응급 진료 여건을 갖춘 뒤, 교육과 청년 일자리·주거, 어르신 돌봄으로 넓혀간다는 것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근대역사문화유산과 원도심, 고군산군도에 문화과 예술을 입혀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공직사회는 인사부터 바꿨다. 김 시장은 “공정한 인사가 청렴한 공직의 출발”이라며 “줄이 아니라 일로 평가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자 공직사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원은 원스톱 체계를 강화하고, 소극행정은 시장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

이웃 지자체와의 관계도 다시 열었다. 5년간 멈춰 있던 서천군과의 협의를 재개했고, 김제·부안과도 공동 현안부터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군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며 “시민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와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가 완성되고 군산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 성과를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더 많이 감내해 주신 분께는 더 두텁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준 시장은 마지막으로 “군산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이라며 ‘시민주권 도시,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눈 팔지 않고 담대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7개 마을 ‘햇빛소득마을’ 선정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로 마을소득 창출

정읍시 7개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사업에 조건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정읍 지역 5개 읍·면에서 총 10개 마을이 신청했다.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7개 마을이 조건부 선정됐으며, 나머지 3개 마을은 차기 공모 신청 권고 대상으로 결정됐다.

조건부 선정된 곳은 △신대마을 양괴 △임암면 반월 △소성·임암면 원천 △소성면 애당 △영원면 청량 △칠보면 명천 △칠보면 복호 등 7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합 구성, 사업부지 확보, 자금 마련,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여건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안 분야별로는 △계통 보안 2개소 △자금 마련과 계통 보안 2개소 △부지 확보와 계통 보안 1개소 △부지 확보·계통 보안, 기타 사항 1개소다.

조건부 선정된 마을은 선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마을에서 보안을 마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연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시동

이날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19건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국비 확보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등을 살피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정책과 연계해 △미래 신산업 육성 △교통·SOC 확충 △식품산업 고도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 기반 강화 등 익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됐다.

최정호 시장은 각 사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에 머물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사업 논리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

했다.

특히 사업별 사전 행정절차와 국비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국가예산은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한발 앞선 준비가 중요하다”며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 연결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2026년 화랑훈련’ 실시

군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간 지역 안보 역량 강화와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후방지역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제35보병사단 등 관할 군부대, 군산경찰

서, 군산소방서 등 민·관·군·경·소방을 아우르는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한다.

주요 훈련은 적의 해안 침투 및 도심 테러 상황 등을 가정해 진행되며, 국가 중요시설 방호,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피해복구 등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이 전개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가동해 작전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훈련 기간 중 군 병

력과 장비, 차량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훈련에 따른 통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놀라지 마시고 훈련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훈련 기간 중 드론의 무단 비행이나 군사시설 무단 촬영 등 거동 수상자를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피지컬 AI 산업’ 키운다

산·학·연 역량 결집

익산시가 산·학·연의 기술과 역량을 모아 피지컬 AI를 접목한 신·구 국가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함께 미래로 피지컬 AI 추진단 첨단산업분과 회의’를 열고 피지컬 AI 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학·연구기관에서는 원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키엘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했으며, 기업에서는 현대농기계, 이티컴파니, 에스와이코리아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익산시의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봤다. 이와 함께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제안사업을 중앙부처 정책과 연결해 국가예산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동향과 향후 대응 전략도 함께 살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예산사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관계기관 합동 과적차량 단속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군산시가 지난 8일 군산항 5부두 인근에서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차량 수명 단축, 대형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군산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군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위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함께 운송업체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 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과적(적재 초과), 운행기록장치 관련 사항, 적재 불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위험차량 운행이 도로 및 교량 등 기반 시설 손상과 제동거리 증가를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운전자들에게 적극 안내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 고부농민봉기 알리기 참여 특별법 개정 공감대 확산

정읍시가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특별법 개정에 뜻을 모으는 누리 소통망(SNS) 참여 잇기(릴레이)를 시작했다.

첫 참여자인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7일 개인 누리 소통망에 ‘1894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정읍 고부농민봉기’라는 문구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팸말을 든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다음 참여자로 이복형 정읍시의회의장을 지목했다.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의 1차 봉기와 9월의 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시는 이 규정이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위상

과 참여자의 명예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참여 잇기는 주요 인사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같은 문구가 담긴 팸말을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을 개인 누리 소통망에 게시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교류 관계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어가며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참여 잇기가 고부농민봉기의 가치를 되새기고 특별법 개정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익산 서동·선화 이야기, 경주 관객과 만난다

익산시는 오는 23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익산시립예술단의 브랜드 공연 ‘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를 선보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경주문화재단이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6년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협력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며, 익산시립예술단은 익산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체로 참여한다.

공연은 오는 23일 오후 2시와 7시 30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진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모노레일 구상금 소송 1심 승소

법원, 시행사에 403억 지급 판결 시, 채권 활용 시설물 귀속 추진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전환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등)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株)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시에 약 403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

억원)과 관련,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집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밟아갈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 마련과 투명한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출범하

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위원회를 통해 과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한편, 향후 모노레일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 및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시민 중심의 해결책 도출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확고히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장류축제, 셔틀버스 3개 순환 노선 운행

순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용 셔틀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방문객과 군민들이 주차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장을 오갈 수 있도록 주요 거점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을 마련했다. 셔틀차량은 축제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1노선은 일품공원을 출발해 독대마당과 새마을금고, 순창경찰서, 국민체육센터를 거쳐 축제장까지 운행한다. 2노선은 일품공원에서 출발해 백제약국과 우리치과, 주공아파트, 청년문화센터, 국

민체육센터를 지나 축제장으로 향한다.

3노선은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설운동장과 축제장을 오가는 순환 노선으로 운영된다.

군은 셔틀차량 운영을 통해 축제장 인근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가용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셔틀차량을 적극 이용해 편안하게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강좌 확대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 2차 및 3차 공모에 선정돼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강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어르신 등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공모 선정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2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통

해 수영·탁구·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운영한다. 참여자의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신체 여건에 맞게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사업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궁·체조·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생활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간 경쟁과 교류를 위한 대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이서청소년원 서예교실 3명 공모전 전원 입상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 러닝크루 '서예교실' 참여 청소년 3명이 '2026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 공모전'에서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윤수정(이서초 6)·최은우(이서초 3) 학생이 동상을, 최은서(이서초 5) 학생이 특선을 각각 차지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서예교실에서 갈고닦은 붓글씨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정성껏 작품을 완성했으며, 출판자 전원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결실을 맺었다.

입상작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공모전 전시에 걸려 관람객들에게 청소년들의 열정과 기량을 널리 알렸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 서예교실은 청소년 지역 프로젝트 '동네방네 해피투게더'의 하나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완주=김평곤기자



2023년부터 이어온 이 강좌는 올해 청소년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8회에 걸쳐 열렸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집중력을 기르고 바른 글씨를 익히며 자신감을 쌓았다.

이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3일 열리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이 그린(Green) 이서' 행사장에 이번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고, 입상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이번 무대에서 지역의 하나로,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확대...송동·산동·산내 추가 배치

남원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송동면·산동면·산내면에 행복콜택시를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 경계 밖으로 운행구간을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번 증차로 남원시 행복콜택시는 기존 15대에서 총 18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사매면·수지면·주생면에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한 데 이어 올해도 운행 차량을 늘려 면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 증차와 함께 면 경계 인근 주민들의 이동 여건을 고려한 운행구간 확대를 처음 시행했다. 면 안의 교통시설보다 인접 지역의 버스승강장 등이 더 가까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면 경계에서 출발하는 경우 경계 밖 최대 1km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구간은 면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 한하며, 면 밖에서 면 경계 밖으로 운행구간을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고 있다.

행복콜택시는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1인당 500원의 요금으로 정해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이용을 원하는 면민은 해당 면에 배정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배차를 요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증차와 운행구간 확대가 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가을딸기 '고슬' 9월 출하 틈새시장 공략 농가소득 확대

일반적으로 딸기는 겨울철에 맞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채류로 알려져 있지만 남원시에서는 가을부터 딸기 품종 '고슬'이 출하하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시 수지면 양용우 농가는 '고슬'을 약 1,322㎡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지난 8월 12일 정식을 실시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9월 20일부터 수확에 들어갔다. 현재 수확한 고슬딸기는 서울 가락시장과 여수(딸기모래), 지역 로컬푸드 매장 등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최근 판매가격은 1kg당 약 3만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농가는 생육 상황에 따라 하루 40~50kg 정도를 수확해 출하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딸기 출하시기보다 훨씬 이른 9월부터 출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틈새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의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고산서 시가 골라주는 '취향 맞춤' 로컬투어 진행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 DMO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과 11월 1일 고산면 일원에서 AI 여행 취향 진단을 활용한 로컬투어 취향파라, 고산을 운영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취향파라, 고산은 여행자의 취향과 완주 고산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참여형 로컬관광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AI 여행 취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XR버스 역사 탐방과 대아람·만경장 물길 이야기, 휴양림 숲명, 고산향교·성당 탐방으로 구성된 '시간여행형' △노포와 고산미소시장 장보기 미션, 로컬 한 끼 등의 '로컬탐험형' △유생복을 입고 선비경매와 재치 과거시험, 세심정 마음비움 미션과 선비밥상을 즐기는 '선비놀이형' △수생생물 탐험과 물고기 잡기, 바비큐, 무궁화길 자연놀이와 생태운동회 등을 진행하는 '생태탐험형' 등 4개 코스 중 하나를 배정받는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당일 코스로 운영된다. 고산미소시장에서 AI 여행 취향 진단 후 코스별 여행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참가자 네트워킹으로 마무리한다.

참가자는 하루 100명씩 총 2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코스별 25명 내외로 운영한다. 참가비는 1인 1만원으로 AI 취향 진단, 코스별 체험, 로컬 음식 등이 포함된다.

/완주=김평곤기자

순창군,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감염병 예방 강화

순창군이 쓰쓰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농작업 및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쓰가무시증은 매년 10월과 11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순창군은 이 시기에 맞춰 주민 대상 감염병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관내 읍·면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쌍치면을 대상으로 3개 마을을 '진드기 제로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10월 초에 주민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예방수칙 실천율을 높이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읍·면 경로당 등 순회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다.

쓰쓰가무시증은 풀밭 등에 서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물린 부위에는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야외활동 시 스킨아웃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등이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인계 지산·유등 금판·유촌마을 마을당 1,000kW 태양광 발전 추진

순창군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2차 공모에서 인계면 지산마을과 유등면 금판·유촌마을 등 3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마을은 각각 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여기서 발

생한 수익은 주민 소득과 마을공동체 운영 등에 활용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선정에는 각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됐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아 공모를 준비해 왔으며, 군은 향후 발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지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순창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공모사업과 순창형 사업을 함께 확대해 민선 9기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 목표에 다가간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선정은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순창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해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차 공모사업에 참여할 마을의 신청서류를 오는 10월 2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세대 아우르는 문화 거점 도약

아트체험관Ⅱ 개관 프로그램 확대 어반스케치·공예·가족체험 등 다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가을철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 거점으로서 활기를 더하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 새로 문을 연 아트체험관Ⅱ에서는 10월부터 11월 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례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어반스케치(16회)'와 실생

활 소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토텐공예(8회)' 과정으로 짜여, 주민과 방문객이 작품 활동에 몰입하며 일상 속 치유와 성취감을 느끼도록 기획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융복합 예술교육도 눈길을 끈다. 12월까지 유아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뽕공이의 시간 여행'은 역사연계 5회, 전시 연계 5회 등 총 10회 일정으로 꾸렸다.

역사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연극과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통해 공간에 얹힌 옛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짚어본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제1전시관에 열리는 '프리다 칼로' 전시를 땀공이의 시선으로 감상하고 창작 활동을 펼치는 전시 투어 형태로 진행해 교육적 재미를 높였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삼례문화예술촌에 다채로운 체험과 가족 교육을 더해 한층 풍성해졌다"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활기 넘치는 예술촌이라는 열린 문화 플랫폼 안에서 더욱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김평곤기자

남원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성과

'아이가 행복입니다 AWARDS' 공공부문 환경조성분야 대상

남원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서 열린 '2026 아이가 행복입니다 AWARDS'에서 공공부문 환경조성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어워즈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돌봄·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남원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탄생부터 산후케어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비서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수영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구부 성평등가족부 차관 등



<사진=남원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원시는 24시간 분반 의료환경 구축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출산·양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분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 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공백을 줄이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을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와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다운'은 산모실 13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이용 대상을 전북도민과 지리산권 주민까지 확대했다. 시는 이용료의 50~9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출생 축하금과 첫

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가정 지원 정책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속에 올해 9월 말 기준 남원시 출생아 수는 2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명보다 25.4% 증가했다. 관내 분반 의료기관의 분만 건수도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38건으로 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새마을운동단체 장애인복지관에 고추장 전달

새마을운동고창지회(지회장 노영열), 고창군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례), 새마을지도자고창군협의회(회장 표명섭)는 지난 6일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직접 정성 담긴 '행복나눔 고추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추장은 새마을운동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직접 담근 것으로,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관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지회장 노영열), 고창군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례), 새마을지도자고창군협의회(회장 표명섭)는 "회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고추장이 우리 지역장애인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온정이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 청원경찰협의회 정읍 고향사랑기부 동참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전북광역본부(회장 정규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도내 시·군이 함께 발전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정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았다.

전북광역본부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도민의 안전과 시설 경비를 맡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활동하는 단체다. 청원경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규동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정읍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영화 보며 편견 허문 '밤마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완주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영화를 감상하며 편견의 벽을 허무는 '2026 우리동네 밤마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성황리에 열었다.

복지관 강당에서 최근 열린 행사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봉동로타리클럽의 후원과 완주미디어센터의 연계 협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사전 신청한 군민 50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웃음을 전하

는 영화 <육사오(6/45)>를 함께 감상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복지관 측은 영화 상영과 더불어 장애인 이해 퀴즈, 간식 나눔 등을 결

합해 참여 주민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무심코 가졌던 편견을 돌아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배려의 가치를 되새겼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영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장애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마동 '사랑의 밥차' 운영

마동 지사협·마곳간봉사단 주민 위한 식사준비

익산시 마동에서 이웃을 위해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남희·최희정)는 지난 8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다.

사랑의 밥차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

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두 번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봉사와 후원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마곳간봉사단 회원들은 이른 시간부터 음식 준비와 배식, 현장 정리 등에 참여해 주민들을 위한 한 끼를 함께 마련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도 후원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읍-광주 학운동 주민자치회, 교류행사

부안군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기)는 지난 7일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학운동 주민자치회(회장 김대영) 초청으로 제23회 추억의 광주 충장축제에 참석하여 교류행사를 통하여 상호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2008년 8월(1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다양한 교류로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일(음인의 날) 자치위원회 간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 기부와 지역 특산물 교환을 통해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주민자치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자치를 위한 공감과 소통을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들 간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43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는 지난 8일 진안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제43기 진안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재길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구동수 지회장, 김창주 대학장, 음·면 노인회장, 졸업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맺은 어르신들을 축하했다. 제43기 노인대학에서는 총 66명

의 졸업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모범학생 표창에는 △진안군수상 전인숙(69세), 진성준(77세), △진안군의회 의장상 허정옥(67세), 김규선(77세), △진안군노인회장상 정을선(91세), 최인수(84세), 노인대학장상 한정자(82세), 김순길(84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광경자(59세) 씨에게는 노인대학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장에 담은 온정

익산시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직접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남중동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동석)가 지난 8일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주민자치위원 22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27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연탄 500장을 전달했다. 특히 위원들은 연탄을 전달하며 대상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고동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고산면 '행복한 오늘' 장수사진 액자 선물

완주군 고산면이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소중한 순간을 액자에 담아 전하는 '행복한 오늘, 아름다운 인생'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열었다.

지난 7일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지부장 이세민) 주관 아래 완주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인천)와 고산면이 손을 맞잡아 마련했다.

완주노인복지센터는 참여 어르신을 추천하고 이동을 지원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는 장수사진 촬영을 맡았다. 촬영한 사진은 보정과 인화를 거쳐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세민 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장은 "어르신들의 환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정성껏 작업해 오래 간직하실 수 있는 사진으로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주의 화재 예방하자!

화재발생 원인1위 부주의

1

담배꽂초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

2

화기는 항상 꺼졌는지 확인!!!

3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절대 금지!!!

4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 차단!!!

사소한행동. 습관이 큰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여 화재 예방 합시다.

〈一事一言〉



통역 부실 논란? 이게 ‘국제 엑스포’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유령 부스’ 논란 이어 ‘통역 마비’ 국제적 망신 산 관제 행사…

국제 엑스포 현장에서 차마 눈을 두고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졌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화려하게 막을 올린 수출상담회장에 전문 통역사가 배치되기는커녕, 현장 운영요원과 담당자들이 스마트폰 번역기 앱을 켜고 외국인 바이어와 대화를 나누는 초유의 파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화학·바이오·기계 등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정교한 단가 협상이 오가는 공식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 스마트폰을 중간에 두고 단어를 읊조리는 모습은 ‘국제 엑스포’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이지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본지가 앞서 지적했던 ‘유령 부스’ 사태에 이어 발생한 이번 ‘통역 마비’ 파행은 대형 국제·지역 행사의 총체적 부실과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민낯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작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소프트웨어인 ‘전문 통역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로 비쳐졌을 것이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international shame) 국제적인 망신을 안겨준 셈이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번 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해외 판로 하나를 뚫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시제품을 준비하고 밤을 새워 기술 자료를 만든 도내 스타트업과 향토 기업들은 현장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의 핵심 매커니즘과 우수성을 정교하게 설명해야 할 순간에 스마트폰 번역기가 엉뚱한 단어를 내뱉으며 대화가 끊겼고, 결국 바이어들은 조소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도민 세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어렵게 찾아온 비즈니스 기회마저 행정의 불성실함으로 날려버린 기만행위다.

이번 ‘번역기 엑스포’ 사태의 근본 원인은 예산 절감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행정의 안일함과 이벤트 대행사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전체 행사 예산 중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전문 통역원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할 자리에 만약에 사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일용직 알바나 미숙한 요원을 대거 배치하여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차액을 대행사의 호주머니로 챙긴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예산 집행 내역 정밀 조사하고
대행사·직무유기 엄중 책임 물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태를 결코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먼저 전북도 감사실은 해당 행사의 입찰 과정에서 예산 정산 내역, 위탁 대행사와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 감사해야 한다.

전문 통역원 배치 기준을 위반했거나

부실 인력을 투입해 계약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해당 대행사에 대해 즉각적인 용역비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도내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엉터리 운영을 방관한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행사 직후 전북도가 발표할 ‘수출 상담액’과 ‘계약 추진 실적’이라는 허구의 숫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통역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한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수천만 달러의 상담 성과가 집계되는지, 그 ‘성과 뽐튀기’의 실태를 도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는 지역 기업의 사활이 걸린 전쟁터다. 그 전쟁터에 장수들을 보내면서 칼과 총 대신 번역기 앱 하나 쥐여준 전북도정의 무능과 무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껌데기뿐인 행사로 성과표만 채우려는 관제 전시 행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도민의 세금은 행정의 치적 잔치가 아닌, 지역 기업의 진짜 생존을 위해 쓰여야 한다.

사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이제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과제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과 수자원을 장거리로 끌어오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촉구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한 지역 산업 유치 요구를 넘어 국가 산업입지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는 의미가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10~16GW에 달하고, 생산시설 10기가 가동되면 하루 107만2천 톤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망과 용수 공급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서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높은 전력 자급률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대규모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지역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장거리 송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당위성을 갖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다.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지방은 인재와 자본, 기업을 빼앗기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분산 배치는 지방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핵심 산업의 입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배려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물론 반도체 생산시설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충분한 공업용수,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되,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입지정책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증설부터 서남권 입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익산·완주 등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서남권 분산 배치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국가 반도체 산업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반도체 강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산업입지의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야 할 때다.

▲오늘의시

당신 없는 하루 / 김 용 택

해 뜨니
앞 강물은 저리 흐르요
당신 떠난 이 나라
쳐다볼 곳 없는 내 눈길이
먼 허공을 헤매이고 헛헛한 마음도
이리 기댈 곳 없으니

이 맘이 시방 맘이 아니요
차라리
이 몸 이 맘
이 강물이 다 가져가 불고
저 강물에 얼른얼른
오늘 해도 저불면 좋겠소.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순창농림고를 졸업한 뒤 스물한 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2009년 정년 퇴임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로’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91.4.1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100일

‘살아가는 힘 키우는 교육’ 닷 올렸다



인터뷰

천호성 전북교육감

“지시 아닌 학교 지원 조직 탈바꿈
기초학력·독서·지역상생 주력”

“지난 100일이 전북교육의 새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8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공교육의 본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지난 100일간 청사 스피드게이트 철거와 간부회의 생중계를 도입해 행정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향후 핵심 과제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독서 300 프로젝트’, 교권과 학생인권 함께 지키는 교육인권 보호망 안착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천 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과 전북유학, 영재학교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육청이 지시하는 관행을 깨고 학교를 뒷받침하는 지원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해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피드게이트 철거·회의 생중계로 ‘행정 문턱’ 낮추고 소통·개방 시동
공교육 본질 회복...교육장 지역추천제·전북유학으로 지역소멸 맞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천 교육감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행정의 문턱 낮추기와 기초학력 보장, 지역소멸에 대응한 교육자치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00일간 드러난 정책적 변화를 짚어보고, 향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실질적 과제를 살펴본다.

△행정 문턱 낮추기... 스피드게이트 철거·회의 생중계
취임 초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행정의 개방과 소통 방식의 전환이다.

천 교육감은 취임 직후 도교육청 본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스피드게이트를 철거했다. 청사 진입 장벽을 없애는 대신 1층 로비와 도서관 등 공용공간을 도민과 교육 구성원에게 전면 개방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전북교육청 주간 정책회의와 도내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기관장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했다. 밀실 행정 논란을 차단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을 교육 현장과 도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력·안전망 재정비... ‘기초학력·독서 300’ 가동
학생 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저하에 대응한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독서 300 프로젝트’를 전면 배치했다.

초·중·고 학령기 전반의 문해력 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독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화하고 있다. 수업과 평가 방식에서도 단순 암기 위주 평가를 벗어나 학생의 개별 성장을 관찰·지원하는 ‘성장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학생 안전과 권리 보호 정책도 구체화했다. 청소년 정서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 연계망을 가동했다. 또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보장을 아우르는 교육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교실 내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교육장 지역추천제’와 ‘전북유학’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협력과 지역 단위 교육자치 모델도 도입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교육장 지역추천제’를 시행했다. 분청 주도의 일방적 임명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시·군의 교육 현안을



잘 아는 인사를 지역 추천을 거쳐 교육장으로 발탁하는 방식이다.

외연 확장 정책으로는 기존 농촌유학에 특성화고 국제반 등을 결합한 ‘전북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외부 학생 유입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존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참여하는 등 지자체와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향 제시’ 마친 100일... 현장 안착·실효율 검증 과제
취임 100일간 교육행정의 체질 개선과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진정한 평가는 향후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의 경우 공정성 확보와 실질적 자치 역량 발휘 여부가 관건이며, 전북유학 역시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주 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기초학력 지원과 독서 300 프로젝트 등도 일선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막으면서 실제 학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안착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 100일은 눈앞의 성과를 내기보다 전북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세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학생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본 틀을 잡은 천호성호가 남은 임기 동안 선연적 구조를 넘어 일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